

##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 한솔텔레콤

#### ATM방식 아이비네트 개통

국내에도 ATM교환방식과 프레임릴레이 등 통신관련 최신 기술을 적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 등장했다.

(주)한솔텔레콤은 지난 6월5일 개통하는 인터넷서비스 「아이비네트(IVYNet)」에 국내 최초로 ATM교환방식과 프레임릴레이 기술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한솔텔레콤은 ATM교환방식과 프레임릴레이 기술 도입을 위해 미국의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PSINet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아이비네트」에 적용된 기술은 국제회선을 통해 날로 폭증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량을 가장 효율적이

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동화상·그래픽·음성 등을 혼합, 대규모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한솔측은 이 서비스는 기존의 라우터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용선의 대역폭 조정기능을 활용, 하나의 전용선을 인터넷망과 기업망으로 구분해 사용함으로써 가상 사설망 서비스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의 규모·통신환경·이용 목적 등에 적합하게 월드와이드웹(WWW), 전자우편, 뉴스 수신 및 가상사설망 등의 대역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네트워크의 적체 현상을 최소화할수 있다. 「아이비네트」는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이기위해 24시간 고객지원 데스크를 운영되며, 개인 사용자를 위한 「아이비네트」 서비스는 전국적인 망이 구축되는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 콤텍시스템

#### FRAD장비 개발

콤텍시스템이 근거리통신망(LAN)이나 호스트 컴퓨터와 접속해 프레임릴레이망과 X.25데이터통신망을 접속시켜주는 프레임릴레이 조립본해(FRAD)장비(모델명 크리스탈4100)를 개발, 6월부터 공급에 들어갔다.

미 모토롤러ISG의 기술이전을 통해 지난 8개월에 걸쳐 개발된 이 FRAD장비는 PC와 일반 터미널, 워크스테이션, 각종 콘트롤러 등을 접속할 수 있으며 플래쉬 메모리를

사용해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FRAD장비는 SDLC, X.25, Bisync, Async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회선장에서 동기식은 T1(1.544Mbps)급까지, 비동기식은 38.4Kbps까지의 속도로 백업이 가능하다.

### 한국통신

#### 7월부터 코넷 이용료 38% 인하

한국통신은 지난 6월1일부터 자사 인터넷서비스인 「KORNET」의 이용료를 38% 내린다고 밝혔다. 월 4만원이던 셀/PPP 서비스의 이용료를 2만5천원으로 내리고 월 7만원이던 고속모뎀(HMS, 128Kbps~768Kbps)의 장비대여료도 1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 9월부터 고속전용 패킷망서비스

올하반기부터 자체 통신회선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PC통신업체들도 HiNET-P망을 통해 고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멀티미디어 통신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8.8Kbps급 고속통신망인 「01411」 서비스를 개통,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해 부산·광주·대구 등 전국 33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총 2천포트에 이르는 지역노드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01411」 고속망이 개통되면 하이넷P를 통해 PC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물론이고 「하이텔 인포숍」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소규모 업체들도 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비싼 전화요금을 물고 고속서비스를 이용했던 지방사용자들도 기존 시내요금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고속PC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은 또 고속통신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장기적으로 현재 14.4K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01410」 서비스를 28.8Kbps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28.8Kbps급 통신망 개통에 맞춰 부과할 예정이던 접속료를 014XY 요금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보류할 계획이다.

### 캄보디아 전국TRS사업 획득

한국통신은 캄보디아의 전국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권을 획득했다.

한국통신은 지난 6월 5일 오후 6시(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피텔 캄보디아 호텔에서 서영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정책심의관을 비롯, 소쿤 우전부 장관 등 양국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TRS 무선통신사업을 위한 양국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통신을 비롯해 LG정보통신, 싱가포르의 한국기업인 SMI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총 3백만달러를 투자해 캄보디아 전역에 무선통신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데 지난 3월 김영삼 대통령이 ASEM회의 참석시 주창한 '메콩강유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도되는 첫 사업이다.

## KDC 정보통신

### 디지털 가입자장치 개발

KDC 정보통신이 2천4백 bps~64Kbps속도를 지원하는 디지털 가입자장치(DSU)를 개발했다.

KDC정보통신은 지난 1년동안 총 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디지털 데이터망과 데이터 단말장치를 동기식 및 비동기식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DSU를 개발, 6월부터 본격 공급에 나섰다. 단독 및 집합형 검출방식을 채택한 이 DSU는 전용회선용 디지털 데이터망(DSU) 네트워크 및 사실망을 지원하고 장애로 인한 데이터통신 두절상태를 제거하는 SDR(Single Dial Restore) 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9.6Kbps급 이하의 비동기 직렬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며 전면판을 액정소지자(LCD)·전개발소지자(LED)로 각각 구성, 인터페이스 신호 및 DSU의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기아텔레콤

### 인도 현지법인에 디지털

### TRS장비 공급

주파수공용통신(TRS)전국사업권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기아텔레콤이 인도네시아의 기아자동차 현지 법인인 기아티모르모터스사에 디지털TRS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기아텔레콤은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에 진출한 기아티모르모터스사의 현지 조립공장과 AS부품공장 인근 지역에 자가망용 TRS시스템을 공급하게 된다.

## 데 이 콤

### PC통신 3차원 그래픽서비스 시작

데이콤은 게임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아블렉스와 공동으로 3차원 PC통신서비스인 '매직랜드'를 개발, 지난 6월 15일부터 시범서비스

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매직랜드 서비스는 거리와 건물, 시설등을 3차원 현실세계처럼 설계, 이용자들이 실제로 가상의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또 게시물이나 정보를 열람하면서 옆의 이용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공간이동을 통해 다른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용자는 36개의 아바타(Avatar, 자기분신)중에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선택,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국내에 3차원 그래픽으로 PC통신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해외에는 월드채트 등 인터넷 기반의 3차원 그래픽서비스가 일부 서비스되고 있다.

### 인터넷 가상쇼핑몰 개장

데이콤은 6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상품 검색은 물론 주문·대금결제·배달까지 통합 지원하는 사이버쇼핑몰인 「인터넷파크」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 개설된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LG·삼성·국민·외환·BC 등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금결제를 하고 상품은 가정으로 직접 배달된다.

데이콤은 인터넷파크 서비스를 위해 전문 배송업체인 대한통운과 계약을 체결, 일괄 배달체계를 갖췄다.

또 인터넷 상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상품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번호 등 사용자 정보는 데이콤의 전용선인 CCIS(신용카드정보조회시스템)망을 통해 금융기관에 전달되도록 했다.

인터넷파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페이지 (<http://www.interpark.com>)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전화로 대금결제용 신용카드 번호와 인터파크 전용 비밀번호를 통보해야 한다.

데이콤은 시범서비스가 끝나는 오는 9월부터는 현재 화장품, 꽃배달, 귀금속, 식품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품목을 의류 자동차용품, 전자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제품 검색 시스템(Shopping On Demand)도 제공할 계획이다.

## 나래이동통신

### CT-2용 중계시스템 개발

수도권 발신전용휴대전화(CT-2)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래이동통신이 기지국 설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전파중계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 5월 22일 나래이동통신은 안테나 전문업체인 에이스안테나와 공동으로 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중계기, 누설케이블, 분산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CT-2중계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CT-2중계시스템은 송신출력이 미약한 CT-2의 특성상 고층건물에는 층층마다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나래이동통신은 중계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에서 약 25%정도의 기지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수도권 서비스를 위해 2만여개의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이었던 나래이동통신은 중계시스템 이용으로 1백3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같은 비용절감효과를 요금인하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 무선호출용 다채널 송신기 개발

나래이동통신이 1대의 송신기로 최대 16채널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무선호출용 다채널 송신기를 개발했다. 지난 5월 31일 나래이동통신은 중계기 전문업체인 창원전자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1억원을 투입해 다채널 송신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무선폭출 송신장치 1대에 1채널이 결합되는 기존의 송신기와 달리 16채널 이상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으며 최대 48채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신세기통신

### 기술총괄실 신설등 조직개편

신세기통신이 지난 5월 29일 지방 건설팀등 5개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개편에서 신세기통신은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총괄실을 최고 경영층 직속으로 두고 운용본부내에 품질관리(QA)팀을 신설, 기지국 최적화업무와 통화품질 업무를 주관토록 하는 한편 치국(置局)팀을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시설본부로 이관했으며 영업센터를 서울지사 영업팀 직속조직으로 재편, 고객 서비스를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서비스의 조기 실현을 위해 시설본부 산하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건설팀등 4개팀을 신설했다.

## 포스데이타

### 포항전문대와 자매결연

포스데이타가 포항전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포스데이타와 포항전문대는 28일 포항전문대에서 장문현 사장등 회사 관계자와

하민영 학장등 1백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맺고 앞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교육부가 표방한 전문대학 육성 방침에 발맞춰 이뤄진 것으로 포항시가 정보통신 전문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정보통신 테크노파크 설치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기가급 정보통신시스템 SW

#### 개발 추진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원격의료·원격교육·원격쇼핑 등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기반 소프트웨어가 97년말까지 개발된다.

지난 5월 27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표준화·모듈화된 기반 소프트웨어를 오는 97년 말까지 모두 1백50억원을 투입,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 한전정보네트웍

### '96년 우수협력업체 5개사 지정

한전정보네트웍이 최근 중도통신건설, ATI시스템, 서울비지니스시스템, 일산시스템, 서일엔지니어링등 5개업체를 우수 협력업체로 지정했다. 이번에 우수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CATV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설비부문및 통신기자재 부문등 4개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업체로 앞으로 대금 조기결제, 지속적인 사업 물량보장등 혜택을 받게 된다. ◆